부서지고 사라지고 풀숲에 가려지고…

서귀포 지역 해변·방파제·하천에 설치된 인명구조 장비함 관리 소홀

설치·관리주체 기관 달라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

서귀포시 지역 해변·방파제·하천 등지에 설치된 인명구조 장비함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앞 황우치 해변에는 인명구조 장비함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인명구조 장비함은 넝쿨에 반쯤 뒤덮여 있어 문을 여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구조함 내부에 있는 인명구조 장비는 오랜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같은 날 안덕면 화순항 관공선부두. 부두 서쪽 방파제 곳곳에는 인명구조 장비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대부분이 파손돼 있고 심지어 구조장비가 모두 사라진 곳도 있었다.

이처럼 서귀포시지역 해변·방파제 등지에 설치된 인명구조 장비함 일부가 관리 소홀로 방치됨에 따라 익수자 발생 시 제구실을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화순항 관공선부두 인근에서 만난 한 낚시객은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인명구조 장비함에 장비가 없어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책임은 누가지냐"며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인명구조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도내 인명구조 장비함은 설치·관리 주체 기관이 각각 달라 정확한 설치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 또한 제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내 인명구조 장비함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치·관리 주체가 각각 다르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귀포시는 주기적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안 등지에서 시설물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파손 및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해변과 방파제, 하천 등지에 설치된 인명구조 장비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장비가 없어진 장비함과(사진 왼쪽)과 넝쿨에 가려진 장비함. 이태윤기자

방한 외국인 여행경비 1인당 653달러

재방문 피력 3명중 1명 "제주 찾고 싶어"

제주항공 1056명 설문

제주항공은 한국을 방문한 뒤 자사 항공기로 지난달 1일부터 15일 사이 출국한 외국인 105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한국여행 경비(항공료·숙박비 제외)는 1인당 평균 653달러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사용 금액대를 보면 300~500달러(36만~59만원)가 27.2%로 가장 많았고, 300달러 이하가 20.5%, 500~700달러(59만~83만원)가 19.0% 등이었다.

1500달러(178만원) 이상을 경비로 쓴 응답자는 7.5%를 차지했다. 이들 중에는 러시아(35.0%)와 중국(20.0%) 국적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일본 국적자의 62.3%는 500달러 이하를 사용했다.

가장 많이 구매한 쇼핑품목(중복응답)은 의류(54.5%)였으며 화장품(49.1%)과 식료품(33.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 일수로는 3일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8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국여행을 선택한 이유로는 쇼핑(59.3%)과 미식 여행(56.3%)을 많이 꼽았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의류(57.3%), 화장품(55.7%), 식료품(55.3%) 쇼핑에 지갑을 많이 열었고, 대만 여행객은 시계(73.9%), 의류(71.0%), 신발류(60.9%)에 대한 쇼핑이 많았다.

응답자의 86.5%는 한국여행이 만족스럽다고 했으며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91.2%에 달했다. 재방문 의사를 밝힌 여행객 중 55.6%는 수도권 지역을, 32%는 제주도를 다시 찾고 싶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수렵면허시험 일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3일 인재개발원에서 '2019년도 제2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고대로기자

물질하는 해녀들 10일 제주시 조천해안도로변 바닷가에서 세계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교육청, 9월말까지 폭염대비전담반 운영

체육관 냉방기 확대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비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름철 폭염대책과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전복지관 등 4개 부서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등 12명으로 구성된 폭염대비전담반은 폭염대비 업무총괄을 비롯해 휴업·등학교시간 조정, 학생 건강관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확인 점검 등을 하게 된다.

폭염 대책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휴업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에 32개교 체육관 냉방기 추가 설치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각 학교에 안내된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추가되면서 마련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공항 예약주차제·요금 인상 추진

공항공사 "예약제는 일부 주차면 대상… 김포 우선시행"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 공항 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약 주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2월말까지 용역을 진행해 전국공항 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다고 10일 밝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제주, 김포 등 주요공항의 주차장이 혼잡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에서는 주요 공항의 주차장 운영 현황을 분석해 혼잡도를 해소할 방안을 도출하고 예약 주차제를 전국 공항에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항공사는 이중 예약 주자체에 대해선 김포공항에서 먼저 실시한 뒤 전국공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주차장의 모든 주차면을 예약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차면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약 주차제가 실시되면 공항에 왔다가 차를 세울 곳을 찾지 못해 비행기 시간을 놓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주공항에서는 주차 요금 인상까지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 도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된 이후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제주공항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몰려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공사 측은 판단했다.

제주공항 주차장은 최대 1588대까지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요금 인상폭에 대해선 도내 공영 주차장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제주공항 주차장 요금은 2013년 1월 이후 6년 만에 오르게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학부모 기자단 모집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아이와 교육현장의 소통을 위한 '2019년 학부모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학부모기자단은 제주교육정책 소개나 교육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자녀교육에 대한 유익한 정보 등을 학부모의 눈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의 710-0123. 오은지기자

사랑으로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다큐제주
www.jejupd.com
064) 742-8526 010-5124-3434

기업홍보영상 / 드론 영상촬영 / 다큐멘터리 제작 / UHD 콘텐츠 제작 판매 / 유튜브 영상